

‘2018 ALB Korea Law Awards’

KL 파트너스, ‘올해의 부티크 로펌’ 선정

‘올해의 외국 로펌’엔 Gleiss Lutz

아시아 지역의 법률매체인 ALB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시장에서의 M&A 딜은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라고 한다. 2017년 1년간 416억 달러에 이르는 360개의 M&A 딜을 기록하며 2016년의 353개 딜에서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거래규모는 523억 달러에서 23.2% 줄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딜은 많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법률시장이 역동적이고 많은 국내의 로펌,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의 경우 조 단위의 초대형 IPO가 잇따라 성사되며 의미 있는 한 해로 마무리된 것이 2017년이다.

한국시장에서의 주요 거래 등을 평가해 분야별로 ‘올해의 딜’과 ‘올해의 로펌’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ALB Korea Law Awards’가 여섯 번째를 맞아 11월 9일 저녁 서울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18년 시상식이 열렸다. ALB는 2017년 6월 1일부터 올 5월 말까지의 거래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가렸다고 소개했다.

35개 부문 시상

모두 35개 부문으로 나뉘 이루어진 시상에서 김앤장이 ‘규제와 컴플라이언스(Regulatory and Compliance)’, ‘조세와 신탁(Tax and Trusts)’, ‘TMI’, ‘건설과 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등 모두 1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며 2018년 ‘올해의 한국 로펌(Korea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또 국제중재와 M&A 분야에 특화해 비약적인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법무법인 KL 파트너스가 지난해에 이어 2

년 연속 ‘올해의 부티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되었으며, ‘올해의 외국 로펌(Korea Practice Foreign Law Firm of the Year)’엔 독일 로펌인 Gleiss Lutz가 선정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올해의 해외 업무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IP 로펌(Korea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국제중재 로펌(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등 로펌 분야에서만 3개 분야 상을 받았다.

태평양, ‘한국 IP 로펌’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M&A 분야의 파트너인 김상곤 변호사의 ‘올해의 딜 메이커’ 선정과 함께 ‘올해의 코리아 딜 로펌(Korea Deal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광장은 ‘올해의 노동 로펌(Labour and Employment Law Firm of the Year)’으로도 선정됐다.

‘올해의 송무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엔 법무법인 세종이 선정됐다.

한국시장에서 M&A와 자본시장 거래 등을 많이 수행하는 클리어리 가틀립(Clearl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올해의 국제딜 로펌(International Deal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해상 로펌(Maritime Law Firm of the Year)’엔 법무법인 대륙이주가, ‘올해의 가족법 로펌(Matrimonial and Family Law Firm of the Year)’엔 IBS법률사무소가, ‘올해의 국제 IP 로펌(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